

## 중소기업 종사자의 창업역량과 창업의도 간의 영향 관계: 창업효능감과 창업멘토링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이언주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박사)\*

###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중소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창업역량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했으며, 창업역량과 창업의도간에 창업효능감과 창업멘토링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했다. 창업역량의 하위변수로는 창의성, 문제해결, 의사소통, 마케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전국에 소재하는 중소제조기업에서 종사자를 중심으로 수집한 설문지 368부를 실증 분석에 사용하였다. 매개변수 간 인과관계가 없는 병렬이중매개모형을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창업역량 중에서 창의성, 의사소통, 마케팅은 창업효능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창업역량 중에서 창의성, 의사소통, 마케팅은 창업멘토링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셋째, 창업효능감과 창업멘토링 모두 창업 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창업역량 중에서 창의성과 마케팅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창업효능감과 창업멘토링은 창업역량 중에서 문제해결을 제외하고 창업의도에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종사자의 창업의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창업효능감과 창업멘토링이 중요한 요인이고 개인의 창업역량 중에서도 마케팅과 창의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에 이에 대한 교육 및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후속 연구로는 다변량 모형 적용이나 시계열 데이터 분석 및 외부 환경 요인을 고려한 연구, 세부화된 인구 특성을 고려한 창업역량과 성과 간의 차이를 검증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핵심주제어: 중소기업종사자, 개인창업역량, 창업효능감, 창업멘토링 창업의도

## 1. 서론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팬데믹 여파와 세계경제의 불안정으로 인해 세계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미국에서의 금리 조정에 따라 우리나라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미·중 간의 갈등으로 경제 회복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모든 산업에 접목되고 있는 AI와 디지털 전환은 미래 노동시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업경영 약화와 희망퇴직, 조기 퇴직과 같은 문제들이 속출하고 있다. 또한 청년실업률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내부침체와 장기적 성장 동력 약화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계층의 창업을 활성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이정관·서영욱, 2019). 창업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제품과 서비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국가 차원에서는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준다(Vesper, 1983). 이에 창업은 많은 국가에서 경제 발전과 개인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선택되고 있다(Ahn, 2015).

창업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과 신생 기업으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에 우수한 역량을

갖춘 창업자를 발굴하여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역량 있는 창업가들의 창업이 요구되고 있다(임형식·노영재, 2016). 창업은 자신의 고용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역할로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김민성·이미숙, 2019). 따라서 장기적인 경제성장 관점에서 예비 창업가들의 창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도와 의지는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정부와 관련 기관에서는 성공 창업을 위해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과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창업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창업을 시도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경기 불황과 준비 부족 등과 같은 창업에 대한 불확신과 모호성으로 인해 많은 창업자들이 창업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실패를 맛보고 있다(김재형·곽원준, 2018).

창업은 직장 생활과는 다르게 스스로 계획을 세워 임하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창업에는 연습이 없기에 단순히 창업을 하겠다는 생각은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예비창업자들에게는 이러한 어려움이 창업을 포기하게 하는 이유이다(Delmar & Shane, 2003). 따라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가는 창업 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 단독,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박사, smartounju@naver.com

· 투고일: 2023-11-04

· 1차 수정일: 2023-12-12

· 2차 수정일: 2023-12-23

· 게재확정일: 2023-12-28

다양한 문제들을 접하고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긍정적 태도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업 경험자 또는 창업 전문가 즉 창업 멘토에게 멘토링을 받을 필요가 있다.

창업이 가진 성공에 대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개인은 창업에 대한 자신의 믿음과 신념이 필요하며, 창업에 대한 전문성을 지원받을 수 있는 창업 멘토가 필요하다(김영태, 2020).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청년 창업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지만 은퇴자들과 같은 직장인의 창업은 직장 생활과 사회관계 네트워크로 형성으로 조금은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어 경제적 효과가 두드러진다(장영미·하규수, 2018; Kautonen et al., 2008). 이처럼 창업 활성화를 위한 양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창업기업의 질적 생존율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 특히 청년층 보다는 중년층 40대와 50대의 창업 생존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은 직장인의 경험과 개인 역량과 창업역량이 바탕이 되어 창업의 생존율을 높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안은주, 2020). 따라서, 청년 창업보다 중소기업 종사자의 창업 의도를 높이기 위한 역량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여 경제적 파급효과와 일자리 창출과 같은 미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 종사자의 창업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종사자의 창업역량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창업역량과 창업 의도 간에 창업효능감과 창업멘토링의 매개역할을 확인함으로써 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창업 의도를 강화하여 실제적인 창업 행동 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논의

### 2.1. 창업역량

Mitchelmore & Rowley(2010)는 역량을 특정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직무 혹은 결과물과 같은 행동으로 정의하였고, 이는 창업가의 개인 특성 및 기술, 지식을 포괄하는 의미로 정의되기도 한다(장영미·하규수, 2018). 이처럼 창업가의 역량은 해당 직무에 따른 수행과 대처 능력으로 작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개인의 특성과 경험 및 교육 등에 의해 영향을 받는 기술과 태도, 가치, 행동, 성격 특성이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된다(Spence, 1993; Morris et al., 2013).

또한, 창업하여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위험을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iperopoulos & Dimov, 2015), 창업 성공과 관계가 있는 특성으로도 정의되고 있다(이혜영, 2018). 김완재(2007)는 창업 관련한 정보와 지식, 기술 등 개인 특성들이 창업을 할 때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창업역량에 대한 요인들은 후천적으로 획득될 수 있다. 특히 창업을 하기 위한

의도를 창업에 필요한 지식과 자원제공을 통한 창업역량을 강화하고 창업 멘토를 통한 동기부여와 기대감을 높이는 것이 창업 의도를 향상시키는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조한준 외, 2020; 김영태, 2020; 한미경·하규수, 2021).

따라서 예비창업자의 역량은 개인의 특성이 아닌 준비와 노력으로 만들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창업 준비에 필요한 관련 정보나 지식, 기술 역량은 개인 창업에 있어 동기부여 역할을 하며 창업에 대한 이해를 도와 창업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 이러한 창업역량을 키우기 위한 요인들을 살펴보면, 경영에 필요한 역량, 기업가정신, 넓은 대인관계와 같은 역량으로 구분 되어지고 세부적인 역량을 살펴보면 관리 기술, 마케팅 능력, 혁신적인 성향, 사회적 네트워크, 대인관계 능력 등으로 연구 되어지고 있다(강병승, 2020). 또한 창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창업역량 요인으로는 사회·경제적 환경 요인, 개인의 특성 및 역량, 교육 및 경험과 같은 요인들이 있다(Engle et al., 2011; 강병승, 2020; 신향숙, 2021; 이윤석, 2021; 김영태·허철무, 2021). 이와 같은 선행연구에서 살펴보면 창업역량 구성 요인들이 개인의 특성, 직장에서의 직무 또는 교육을 통해 만들어진 기술과 경험에서 관련이 깊게 나타나고, Peterman & Kennedy(2003)은 이러한 창업역량들은 창업준비자가 사업 성공에 대한 자신감으로 연결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개인창업 역량을 창업자의 개인 특성과 기술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을 계획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김영태·허철무(2021), 강병승(2020)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직장의 다양한 근무 경험과 직무 특성을 반영하여 창업 의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창업 성공의 중요한 요인인 창의성과 문제해결 역량과 마케팅 역량 그리고 이러한 역량을 잘 대변하고 전달 할 수 있는 의사소통 역량으로 총 4가지의 요인이 중소기업 종사자의 개인창업 역량 하위요인으로 선정하였다.

### 2.2. 창업효능감

Bandura(1997)는 효능감이란 행동을 계획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자기 자신의 결의와 같은 신념이라 하였고, Zhao et al.(2005)는 창업 분야와 관련된 자기효능감은 역할과 과업 등을 수립하고 계획하여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였다. Wilson et al.(2007)은 창업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사회적으로 창업과 관련된 부분에서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강하며, 다양한 상황에서도 자신 있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감이 창업 의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McGee et al., 2009).

창업자기효능감이 높은 학생에게 창업 의도가 높게 나타났고(Wu & Wu, 2008), 창업효능감은 창업 의도를 높일 수 있는 변수로 많이 연구되고 있다(Krueger et al., 2000; 조한준 외, 2020; 정행로·양동우, 2021). Boyd & Vozikis(1994)는 이처럼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도전에 두려움이 없으며, 어떠한

위험에도 능숙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창업효능감은 창업준비자들에게 창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심리적 특성으로 작용해 창업 의도를 높일 수 있는 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창업에 대한 확신과 자신감으로 정의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 2.3. 창업멘토링

멘토링은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멘토가 경험이 적은 멘티에게 전문 분야에 대한 성장과 성공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지도하여 도움을 주는 과정을 말한다(Wanberg et al., 2003; 조한준 외, 2020).

유영철·이원일(2023)은 문제해결을 위한 외부 전문가의 연결과 의사소통을 위한 다양한 접근 방법의 노력과 격려 등의 기능으로 정의하였다. 오현주(2023)는 창업 지원사업을 통한 창업 시 필요한 멘토링 활용 정도로 정의하였다. 멘토링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창업멘토링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조한준 외, 2020; 한미경·하규수, 2021), 멘토링과 창업의지(김영태, 2020; 윤인철, 2017)에 미치는 영향 연구 등이 진행되었다.

안태욱·이인아(2017)는 멘티의 자기효능감이 창업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고, 천위페이·황균정(2022)은 멘토 역량을 인격 역량, 지식 역량, 감수성 역량으로 분류하여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 관계와 멘토링 기능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오현주(2023)의 연구에서는 창업가 역량은 멘토링 활용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로 창업 멘토링 지원은 창업가 역량이 뛰어난 창업가의 경우 창업을 성공시키기 위해 필요한 요인이 멘토링이라고 연구되었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창업멘토를 통해 기회를 포착하고 마케팅 전략을 구축 등 창업멘토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창업 의도와 창업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유영철·이원일(2023), 오현주(2023)의 선행연구를 토대로 창업 준비과정에 필요한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 및 격려 등 멘토링 활용 정도로 정의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 2.4. 창업의도

창업 의도는 미래에 개인이 자발적으로 창업을 선택하려는 계획이나 욕구와 같은 창업의 한 행동으로 새로운 창업에 대한 태도를 나타낸다고 하였다(Tran & Von Korflesch, 2016). 또 다른 창업 의도는 직장에 고용되는 형태가 아니라 사업 기회를 포착하여 실현하기 위해 계획된 의도이다(Krueger et al., 2000). 정행로·양동우(2021)의 연구에서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시장개방성과 문화사회적규범에 대한 인식과 창업자기효능감도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재열·하태관(2022)은 기술적역량이 창업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한미경(2022)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으로 네트워크 역량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를 보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보면 창업의도는 창업을 실행하는 데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하며, 요구되는 필수적인 요소들은 후천적으로 획득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창업 준비과정의 첫 단계로 장래에 창업을 계획하려는 정도로 정의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 III. 연구 설계

### 3.1.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개인의 창업역량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창업 의도에 미치는 요인을 개인창업역량, 창업효능감, 창업멘토링 등으로 구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의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개인창업역량을 독립변수로 창업효능감을 제 1 매개변수로, 창업멘토링을 제 2 매개변수로 창업의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매개변수들 간에 인과관계가 없는 병렬이중매개모형을 기반으로, 개인창업역량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인 총 효과와 창업효능감과 창업멘토링이 통제된 상황에서 개인창업역량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인 직접효과, 개인창업역량이 창업효능감과 창업멘토링을 경유하여 창업의도에 미치는 매개효과 등을 검증하기 위한 다음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 3.1.1. 개인창업역량과 창업효능감 간의 인과관계

강재학·양동우(2016)는 위험 감수성, 혁신성 및 진취성을 기업가의 요소로 구분하고,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한 결과 창의성과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위험 감수성이 높은 학생일수록 창업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강병승(2020)은 시니어의 창업역량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대인관계역량은 창업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소기업 종사자의 개인창업역량이 창업효능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H1: 개인창업역량은 창업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1: 개인창업역량의 창의성은 창업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2: 개인창업역량의 문제해결은 창업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3: 개인창업역량의 의사소통은 창업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4: 개인창업역량의 마케팅은 창업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1.2. 개인창업역량과 창업멘토링 간의 인과관계

오현주(2023)의 연구에서는 창업가 역량이 창업 멘토링 활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멘토링을 활용하여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네트워크 구축하여 더 좋은 사업계획서 개발부터 제품과 서비스의 마케팅 전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멘토링 활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윤인철(2017)은 성취욕구, 개인 역량, 위험감수성, 혁신성과 같은 개인적 특성이 창업멘토링에 미치는 영향에서 혁신성은 창업멘토링의 하위요인의 경력개발 기능과 역할모델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연구되었고, 성취욕구가 창업멘토링의 하위요인 중에서 경력개발기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따라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창업역량뿐 아니라 창업멘토링을 활용하여 시장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기술과 관련 전문지식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창업역량이 창업 멘토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소기업 종사자의 개인창업역량이 창업멘토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H2: 개인창업역량은 창업멘토링에 영향을 줄 것이다.

- H2.1: 개인창업역량의 창의성은 창업멘토링에 영향을 줄 것이다.
- H2.2: 개인창업역량의 문제해결은 창업멘토링에 영향을 줄 것이다.
- H2.3: 개인창업역량의 의사소통은 창업멘토링에 영향을 줄 것이다.
- H2.4: 개인창업역량의 마케팅은 창업멘토링에 영향을 줄 것이다.

### 3.1.3. 창업효능감 및 창업멘토링과 창업의도 간의 인과관계

강병승(2020)은 시니어의 창업역량이 창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에서 창업효능감은 창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춘호(2022)는 창업멘토링 기능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창업멘토링의 하위요인 중에서 심리 사회적 기능과 역할기능은 창업 의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검증하였고, 김영태(2020)는 창업멘토링은 창업 의지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조한준 외(2020)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창업멘토링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창업멘토링은 창업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렇듯 창업효능감 및 창업멘토링은 창업 의도에 긍정적효과를 주는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 가설 H3: 창업효능감과 창업멘토링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1: 개인창업역량과 창업멘토링이 통제된 상황에서 창

업효능감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2: 개인창업역량과 창업효능감이 통제된 상황에서 창업멘토링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1.4. 개인창업역량과 창업의도 간의 인과 관계

김재현(2023)은 창업환경과 창업자의 특성이 창업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되었고, 이재열·하태관(2022)은 시니어의 창업역량의 하위변인으로 기술, 네트워크, 자금 조달 역량으로 구분하여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기술적 역량이 창업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확인 하였다. 김영태·허철무(2020)는 창업역량으로 제품개발과 생산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전문 인력과 지식을 활용하는 능력을 기술적 역량이라 정의하고, 창업성공에 필수적인 창업자의 아이디어 발굴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창의적 역량으로 정의하여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 기술적 역량과 창의적 역량이 창업 의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양경애·하규수(2020)는 중장년층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역량과 창업 동기가 창업 의도에 미치는 요인을 연구한 결과 창업역량의 정보역량, 경험역량, 네트워크 역량은 창업 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특히 오늘날 소규모 창업자들의 마케팅이 모바일 기반의 이루어지고 있어 정보화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창업 분야 별 특성에 맞는 네트워크 역량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통해 중소기업 종사자의 창업역량으로 창의성, 문제해결과 의사소통 및 마케팅 역량은 창업 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 하였다.

#### 가설 H4: 개인창업역량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1: 개인창업역량의 창의성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2: 개인창업역량의 문제해결 역량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3: 개인창업역량의 의사소통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4.4: 개인창업역량의 마케팅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1.5. 매개효과

이재열·하태관(2022)은 창업효능감은 시니어의 창업역량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이라는 연구결과 창업역량중 기술적 역량만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오현주(2023)의 연구에서 창업 멘토링 활용은 창업가 역량과 지속가능 경영성과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연구결과 창업멘토링 활용의 매개효과는 창업가 역량과 지역 환경 성과만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성과는 기업가적 역량과 관리적 역량에만 창업 멘토링 활용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승(2020)은 창업역량이 창업효능감을 매개로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고, 신교수·한태영(2014)은 멘토링은 직무 열의와 노후 준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는 연구결과 직무 열의와 멘토링의 관계에서 여자보다 남자 중장년 근로자의 직무 열의가 멘토링을 하는 데 더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연구되었다.

김미숙·김영국(2012)은 관광 관련 대학생의 개인적 요인과 창업 의도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창업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연구한 결과 창업자기효능감은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를 통해 창업효능감과 멘토링은 개인창업역량과 창업 의도 간을 매개할것으로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H5: 창업효능감은 개인창업역량과 창업의도 간을 매개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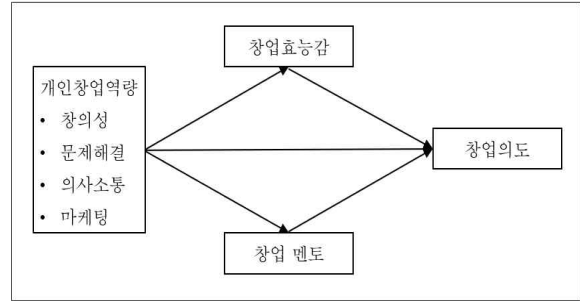
- H5.1: 창업효능감은 창의성과 창업의도 간을 매개할 것이다.
- H5.2: 창업효능감은 문제해결과 창업의도 간을 매개할 것이다.
- H5.3: 창업효능감은 의사소통과 창업의도 간을 매개할 것이다.
- H5.4: 창업효능감은 마케팅과 창업의도 간을 매개할 것이다.

**가설 H6: 창업멘토링은 개인창업역량과 창업의도 간을 매개할 것이다.**

- H6.1: 창업멘토링은 창의성과 창업의도 간에 영향을 줄 것이다.
- H6.2: 창업멘토는 문제해결과 창업의도 간에 영향을 줄 것이다.
- H6.3: 창업멘토는 의사소통과 창업의도 간에 영향을 줄 것이다.
- H6.3: 창업멘토는 마케팅과 창업의도 간에 영향을 줄 것이다.

**3.2. 연구모형**

위 가설을 기반으로 중소기업 종사자가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개인창업역량의 하위변인으로 창의성, 문제해결, 의사소통, 마케팅을 독립변수로 창업효능감과 창업멘토를 매개변수로 하는 병렬이중매개모형을 기반으로 개인창업역량이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부와 창업효능감과 창업멘토를 경유하여 개인창업역량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그림 1>에 제시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 연구모형

**3.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범위와 목적에 부합하는 실증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Naver Office를 이용하여 중소기업 종사자 중에서 창업과 관련한 멘토링을 접한 경험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약 30일간 2023년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진행하였다. 총 430부를 배포하여 총 399부가 수집되었으며, 응답이 성실하지 않거나 결측값이 있는 31부를 제외한 368부를 데이터 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인구통계학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였으며, 측정도구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한 타당도 검증인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측정변수의 일관성인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해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인과관계의 가설검정은 다중회귀분석으로 실시하였다. 개인창업역량이 창업효능감 또는 창업멘토를 경유하여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PROCESS macro의 병렬이중매개모형인 Model 4로 추정한 총 효과와 직접효과는 신뢰구간으로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Bootstrap 신뢰구간으로 검증하였다.

**3.4. 변수의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개인창업역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창의성 5문항, 문제해결 5문항, 의사소통 5문항 및 마케팅 5문항의 총 20문항으로, 매개변수인 창업효능감의 5문항으로 창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자신이 있다는 믿음과 확신, 창업 성공에 대한 믿음과 확신, 신뢰 등에 대한 질문과 내 주변에는 창업에 있어 배울 점이 많은 성공한 사업가, 존경하는 사업가, 내가 관심 있는 유사 사업을 하는 사업가와 나의 창업에 대한 격려와 조언을 해줄 사람이 있는지에 대한 설문으로 창업멘토링 활용에 대한 5문항으로 종속변수인 창업 의도는 5문항으로 구성하여 측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명목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 3.5. 인구통계학적 특성

본 연구는 중소기업(제조, 유통 서비스, 기타)종사자 중에서 창업과 관련한 멘토링을 접한 경험이 있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368명) 온라인설문을 받았고 배경 변수별 특성을 파악하고자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에 대해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2>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	
성별	남성	247	67.1
	여성	121	32.9
연령	20대	41	11.1
	30대	58	15.8
	40대	96	26.1
	50대	145	39.4
	60대 이상	28	7.6
결혼 여부	기혼	264	71.7
	미혼	104	28.3
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6	9.8
	전문대학 졸업	40	10.9
	대학교 졸업	136	37.0
	대학원(재학) 졸업	156	42.4
소재지	서울 경기/ 인천	298	81.0
	충남/ 충북	28	7.6
	전남/ 전북	14	3.8
	경북/ 경남	19	5.2
	강원	7	1.9
	제주	2	5
산업군	제조업	210	57.1
	유통 서비스	98	26.6
	기타	60	16.3
월 소득	200만 원 미만	58	15.8
	200~300만 원 미만	70	19.0
	300~500만 원 미만	73	19.8
	500~700만 원 미만	67	18.2
	700~1,000만 원 미만	46	12.5
	1,000만 원 이상	54	14.7
향후 창업 시점	1~2년	43	11.7
	3~5년	73	19.8
	6~7년	81	22.0
	8~10년	62	16.8
	11~20년	55	14.9
	21년 이상	54	14.7
주요 자금조달 수단	자신	176	47.8
	부모	25	6.8
	친구	3	.8
	투자사	17	4.6
	정부지원	145	39.4
	기타	2	.5

### 3.6. 측정도구의 타당성 검증

전반적으로 KMO와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탐색적 요인 분석의 타당성을 측정하는 데 유용하다. 요인 추출 후의 다음 단계로는 요인을 쉽게 해석하기 위해 요인 회전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은 요인 구조를 명확히 하고 단순화시키는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직교 회전으로 분류되는 Varimax 회전을 선택하였다. 요인 추출 기준은 변수의 공통성이 .5보다 크고 요인적재량이 .5보다 크고 고유 값은 1보다 큰 요인을 기준으로 하였다. 결과는 7개의 요인이 추출되었고 이들 요인의 누적설명변량은 69.973%로 나타났다. 가설검정에 사용되는 요인 값은 추출된 각 요인에 해당되는 변수들의 평균값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표 3> 요인분석 결과

	요인						
	창업의도	문제해결	마케팅	효능감	창업멘토	의사소통	창의성
창업의도3	.842	.099	.211	.136	.137	.085	.158
창업의도1	.817	.118	.198	.042	.174	.138	.114
창업의도2	.816	.171	.219	.165	.169	.111	.159
창업의도4	.815	.059	.158	.230	.176	.086	.117
창업의도5	.721	.159	.136	.225	.162	-.004	.184
문제해결2	.115	.802	.130	.008	.104	.219	.148
문제해결3	.083	.765	.080	.087	.085	.235	.056
문제해결5	.071	.709	.272	.102	.087	.172	.104
문제해결1	.131	.708	.181	.074	.151	.188	.198
문제해결4	.110	.689	.059	.212	.063	.043	.106
마케팅3	.249	.211	.775	.130	.196	.117	.172
마케팅2	.250	.178	.740	.200	.235	.167	.192
마케팅4	.244	.106	.718	.218	.267	.114	.146
마케팅1	.239	.139	.713	.258	.157	.194	.137
마케팅5	.133	.316	.627	.099	.037	.176	.173
효능감1	.141	.085	.140	.707	.203	.139	.331
효능감3	.319	.074	.215	.678	.140	.117	.150
효능감2	.290	.088	.155	.633	.210	.246	.142
효능감5	.016	.220	.147	.622	.350	.176	-.002
효능감4	.258	.215	.299	.620	.216	.109	.183
창업멘토2	.184	.101	.207	.150	.745	.166	.188
창업멘토1	.236	.122	.130	.112	.736	.179	.187
창업멘토4	.153	.242	.075	.412	.624	.164	.034
창업멘토3	.267	.004	.215	.210	.610	.122	.093
창업멘토5	.116	.218	.216	.384	.610	.099	.147
의사소통2	.109	.132	.086	.065	.160	.796	.027
의사소통1	.024	.124	.046	.167	.097	.736	.062
의사소통5	.130	.297	.229	.119	.154	.635	.083
의사소통3	.116	.295	.260	.151	.147	.615	.320
의사소통4	.084	.295	.219	.209	.122	.606	.283
창의성1	.223	.155	.192	.113	.175	.174	.790
창의성2	.225	.207	.148	.206	.147	.171	.780
창의성3	.205	.196	.237	.205	.161	.101	.776
창의성4	.142	.478	.215	.163	.125	.085	.502
고윳값	4.222	3.871	3.572	3.164	3.072	2.988	2.902
설명변량	12.417	11.386	10.505	9.307	9.034	8.788	8.536
누적설명변량	12.417	23.803	34.307	43.615	52.648	61.437	69.973

KMO 표본 적합도=.938  
Bartlett 구형성 검정 카이제곱= 8721.719, 자유도=561, p=.000

### 3.7.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

측정 도구의 신뢰성의 확인을 통하여 일관성의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신뢰성 평가 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인 내적일관성법은 항목들 간의 관련성을 평가한다. <표 4>의 신뢰도 분석결과 .8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는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표 4> 신뢰도 분석

변수	하위변인	Cronbach's α
개인창업역량	창의성	.884
	문제해결	.864
	의사소통	.846
	마케팅	.902
창업효능감		.856
창업멘토링		.855
창업의도		.927

## IV. 결과

### 4.1. 상관분석

상관계수는 변수들 간의 선형관계의 강도를 설명해준다. <표 5>와 같이 해당되는 상관계수가 없어 다중공선성의 가능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변수들 간에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5> 변수 간 상관관계

	창의성	문제해결	의사소통	마케팅	효능감	창업멘토	창업의도
창의성	1						
문제해결	.593**	1					
의사소통	.527**	.565**	1				
마케팅	.610**	.507**	.539**	1			
효능감	.584**	.441**	.529**	.616**	1		
창업멘토	.542**	.427**	.515**	.590**	.696**	1	
창업의도	.539**	.363**	.374**	.576**	.558**	.543**	1

\*\*p<0.001

### 4.2. 가설검정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종사자의 개인창업역량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개인창업역량의 하위변수인 창의성, 문제해결, 의사소통, 마케팅을 독립변수로, 창업효능감과 창업멘토링을 매개변수로 창업 의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산팽창계수(VIF)로 독립변수간의 관계인 다중공선성을 검증한 결과 10보다 작은 2.380으로 나타나 다중공선

성의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PSS는 회귀분석은 양측검증의 p값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의 가설은 방향성 가설이기 때문에 단측검정을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SPSS에서 제시하는 유의확률의 1/2를 사용하여 가설을 검정해야 한다. PROCESS macro(Hayes, 2018)를 이용하여 총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를 포함한 효과 분석을 통해 매개효과 검정을 실시하였다.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을 위하여 10,000회 반복 추출하여 95% 신뢰구간을 사용하였다. 총 효과와 직접효과는 신뢰구간으로 간접효과는 Bootstrap 신뢰구간을 검정하였고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한다.

#### 4.2.1. 개인창업역량이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개인창업역량이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하기 위하여 개인창업역량의 하위변수인 창의성, 문제해결, 의사소통, 마케팅을 독립변수로 창업효능감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6>의 분석 결과 같이 창의성(B=.263, p=.000), 의사소통(B=.257, p=.000) 및 마케팅(B=.320, p=.000)이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설 H1.1은 채택되었고, H1.3, H1.4도 유의적인 영향을 나타나 채택되었고 가설 H1.2는 기각되었다. 표준화계수(β) 비교를 통한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개인창업역량의 영향력의 크기는 마케팅, 창의성, 의사소통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창업역량 중 마케팅이 창업효능감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창업자들은 자신의 역량을 개발할 때 마케팅 및 창의성 역량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의사소통 역량 역시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역량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한 영향을 미치므로, 효과적인 전략을 통해 강화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표 6> 개인창업역량이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창업효능감				
	B	β	t	p	VIF
(constant)	.370		1.814	.035	
창의성	.263	.271	5.075	.000	1.971
문제해결	-.014	-.011	-.218	.414	1.812
의사소통	.257	.206	4.136	.000	1.724
마케팅	.320	.346	6.766	.000	1.805
R <sup>2</sup>	.475				
F	82.257***				

\*p<.05, \*\*p<.01, \*\*\*p<.001

#### 4.2.2. 개인창업역량이 창업멘토링에 미치는 영향

개인창업역량이 창업멘토링에 미치는 영향을 추론하기 위하여 개인창업역량의 하위변수인 창의성, 문제해결, 의사소통, 마케팅을 독립변수로 창업멘토링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창업역량이 창업멘토링에 미치는 영향은 창

의성(B=.218,  $p=.000$ ), 의사소통(B=.272,  $p=.000$ ) 및 마케팅(B=.318,  $p=.000$ )이 창업멘토링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의성, 의사소통 및 마케팅이 높아질수록 창업멘토링의 역량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가설 H2.1, H2.3, H2.4는 채택되었고 가설 H2.2는 채택되지 않았다.

창업멘토링에 미치는 개인창업역량의 영향력의 크기는 마케팅, 창의성, 의사소통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인창업역량 중 마케팅이 창업멘토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준비자들에게 창업멘토링 활용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강조한다. 특히 마케팅 역량을 통해 자신의 창업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소개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며, 창의성과 의사소통 역량 역시 멘토와의 관계를 더 강화시킬 수 있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창업준비자들은 이러한 역량을 강화하고 창업 멘토링에서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표 6> 개인창업역량이 창업멘토링에 미치는 영향

	창업멘토링				
	B	$\beta$	t	p	VIF
(constant)	.485		2.247	.013	
창의성	.218	.220	3.961	.000	1.971
문제해결	.005	.004	.072	.471	1.812
의사소통	.272	.215	4.141	.000	1.724
마케팅	.318	.337	6.344	.000	1.805
R <sup>2</sup>	.431				
F	69.714***				

\* $p<.05$ , \*\* $p<.01$ , \*\*\* $p<.001$

#### 4.2.3. 창업효능감과 창업멘토링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창업효능감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를 <표 7>에 제시하였다. 창업역량과 창업멘토링이 통제된 상황에서 창업효능감은 창업 의도에 유의한 영향(B=.251,  $p=.002$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업효능감이 증가하면 창업 의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창업역량과 창업효능감이 통제된 상황에서 창업멘토링도 창업 의도에 유의한 영향(B=.241,  $p=.000$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H3.1과 H3.2는 채택되었다. 연구 결과는 창업 의사 결정에 있어서 창업효능감과 창업멘토링 활용 관계 형성이 중요하며, 이러한 사회적 연결이 창업 의도를 형성하고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7> 창업효능감과 창업멘토링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창업의도				
	B	$\beta$	t	p	VIF
(constant)	-.396		-1.342	.090	
창의성	.291	.216	3.757	.000	2.131
문제해결	-.044	-.026	-.482	.315	1.812
의사소통	-.106	-.061	-1.150	.125	1.836
마케팅	.349	.272	4.760	.000	2.101
창업효능감	.251	.181	2.979	.002	2.380
창업멘토링	.248	.182	3.126	.001	2.194
R <sup>2</sup>	.440				
F	47.365***				

\* $p<.05$ , \*\* $p<.01$ , \*\*\* $p<.001$ .

#### 4.2.4. 개인창업역량과 창업의도

개인창업역량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창업역량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표 8>와 같이 창의성(B=.411,  $p=.000$ )과 마케팅(B=.508,  $p=.000$ )이 유의적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문제해결(B=-.046,  $p=.314$ )과 의사소통(B=.026,  $p=.389$ )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창의성과 마케팅 역량이 높아질수록 창업 의도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설 H4.1과 H4.4는 채택되었고 가설 H4.2와 H4.3은 기각되었다. 개인창업역량의 영향력의 크기는 마케팅이 창의성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는 개인창업역량 중 마케팅 역량이 창업 의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F-test 결과는  $F=57.609$ ,  $p=.000$ 으로 나타나 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R<sup>2</sup> 값은 .386으로 나타나 개인창업역량이 창업 의도의 전체 변량의 38.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는 창업준비자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이를 효과적으로 마케팅하여 시장에 소개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표 8> 개인창업역량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창업의도				
	B	$\beta$	t	p	VIF
(constant)	-.183		-.598	.275	
창의성	.411	.305	5.293	.000	1.971
문제해결	-.046	-.027	-.486	.314	1.812
의사소통	.026	.015	.283	.389	1.724
마케팅	.508	.396	7.175	.000	1.805
R <sup>2</sup>	.388				
F	57.609***				

\* $p<.05$ , \*\* $p<.01$ , \*\*\* $p<.001$ .

#### 4.2.5. 매개효과 분석

창업역량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인 총효과와 창업효능감과 창업멘토링이 통제된 상황에서 개인창업역량이 창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의 크기인 직접효과를 95%의 신뢰구간 검정으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간접효과는 Bootstrap 신뢰구간 검정으로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4.2.5.1. 창의성**

<표 9>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창업역량 중 창의성 역량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총 효과와 직접효과는 각각 .411과 .291로 나타났으며 신뢰구간 [.283 .539]과 [.163 .419]가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총 효과와 직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창의성이 창업효능감을 경유하여 창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간접효과는 .066으로 나타났으며, 창의성이 창업멘토링을 경유하여 창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간접효과는 .054로 나타났다. 총 간접효과의 크기는 .120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H5.1과 H6.1은 채택되었다.

<표 9> 창의성 효과

	효과	95% LLCI	95% ULCI
총 효과	.411	.283	.539
직접효과	.291	.163	.419
	효과	95% BootLLCI	95% BootULCI
총 간접효과	.120	.073	.174
창의성→효능감→창업의도	.066	.020	.119
창의성→창업멘토→창업의도	.054	.020	.095

**4.2.5.2. 문제해결**

<표 10>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창업역량 중 문제해결 역량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총 효과와 직접 효과는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역량이 창업효능감이나 창업멘토링을 경유하여 창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각각의 특정간접효과는 -.003과 .001로 나타났으나 각각의 Bootstrap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가설 H5.2와 H6.2는 기각되었다.

<표 10> 문제해결 효과

	효과	95% LLCI	95% ULCI
총 효과	-.046	-.202	.110
직접효과	-.044	-.193	.106
	효과	95% BootLLCI	95% BootULCI
총 간접효과	-.002	-.046	.047
문제해결→효능감→창업의도	-.003	-.029	.024
문제해결→창업멘토→창업의도	.001	-.028	.035

**4.2.5.3. 의사소통**

<표 1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의사소통역량이 창업효능감을 경유하여 창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간접효과는 .064로 나타났으며, 창업멘토링을 경유하여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간접효과는 .068로 나타났다. 이 두 변수는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총 간접효과의 크기는 .132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H5.3과 H6.3은 채택되었다.

<표 11> 의사소통 효과

	효과	95% LLCI	95% ULCI
총 효과	.026	-.127	.179
직접효과	-.106	-.257	.046
	효과	95% BootLLCI	95% BootULCI
총 간접효과	.132	.073	.197
의사소통→효능감→창업의도	.064	.018	.119
의사소통→창업멘토→창업의도	.068	.024	.121

**4.2.5.4. 마케팅**

<표 1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마케팅 역량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총 효과와 직접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케팅역량이 창업효능감을 경유하여 창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간접효과는 .080으로 나타났으며, 마케팅 역량이 창업멘토링을 경유하여 창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간접효과는 .079로 나타났다. 총 간접효과의 크기는 .159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H5.4와 H6.4는 채택되었다.

<표 12> 마케팅 효과

	효과	95% LLCI	95% ULCI
총 효과	.506	.391	.624
직접효과	.349	.228	.469
	효과	95% BootLLCI	95% BootULCI
총 간접효과	.159	.099	.225
마케팅→효능감→창업의도	.080	.028	.134
마케팅→창업멘토→창업의도	.079	.032	.135

표준화된 간접효과를 <표 13>에 제시하였다. 마케팅의 간접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고, 창의성, 의사소통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 표준화된 간접효과

	효과	95% BootLLCI	95% BootULCI
마케팅→효능감→창업의도	.063	.022	.105
마케팅→창업멘토→창업의도	.062	.025	.104
창의성→효능감→창업의도	.049	.015	.088
창의성→창업멘토→창업의도	.040	.015	.071
의사소통→창업멘토→창업의도	.039	.014	.070
의사소통→효능감→창업의도	.037	.011	.069

종합적으로 창업효능감과 창업멘토링은 문제해결역량을 제외한 창업역량과 창업 의도 간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사소통역량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비유의적으로 나타났으나 창업효능감이나 창업멘토링을 경유할 때 의사소통역량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업준비자들이 창업효능감과 창업멘토링을 통해 역량을 개발하고 창업 의도를 형성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창업준비자들이 외부 자원과 관계를 통해 의사소통 역량을 발휘하고 창업 의도를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V. 결론

본 연구 결과는 창업역량과 창업 의도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창업역량의 구성 요소가 창업효능감과 창업멘토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업역량 중 창의성, 의사소통 및 마케팅 역량은 창업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문제해결 역량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창의성, 의사소통, 마케팅 역량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둘째, 창업역량 중에서 창의성, 의사소통 및 마케팅 역량은 창업멘토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문제해결 역량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의성, 의사소통, 마케팅 역량이 창업멘토링에도 중요한 요인이고 문제해결 역량이 강할수록 창업멘토링의 기능이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창업효능감이 창업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창업멘토링이 창업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창업에 대한 확신과 믿음은 창업을 의도하는 동기와 의지가 증가될 수 있으며, 창업자가 멘토로부터 조언, 지도, 경험을 얻거나 협력 기회를 찾는 과정은 창업 의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개인창업역량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창의성과 마케팅 역량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문제해결 및 의사소통 역량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마케팅 역량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창업에서의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하였고 상대적으로 의사소통 역량이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창업 행동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겠다.

다섯째, 창업효능감은 창업역량 중에서 창의성, 의사소통, 마케팅 역량은 창업 의도 간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문제해결 역량은 창업 의도 간을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개인의 문제해결 역량이 강할수록 창업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것으로 창업 의도에 대한 영향과 창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여섯째, 창업멘토링은 창업역량 중에서 창의성, 의사소통, 마케팅 역량과 창업 의도 사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문제해결 역량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창의성, 의사소통, 마케팅 역량이 보다 중요한 요인이고 문제해결 역량이 있다면 창업멘토링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창업자의 개인 역량에 따라 창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자 한다.

학문적인 시사점은 첫째, 창업역량과 창업의도 간에 있어 창업효능감과 창업멘토링의 창업역량의 하위변수인 창의성, 문제해결, 의사소통, 마케팅 등 모두 매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으나 문제해결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문제해결역량이 강하다면 이미 창업효능감을 넘어서고 창업멘토링의 필요성이 적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둘째, 창업역량과 창업의도간의 관계에서 창업자의 역량 중에서도 마케팅과 창의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것은 시대적 환경의 흐름이 변화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실무적인 시사점은 첫째, 정부 및 창업관련기관에서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마케팅과 창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시대적인 흐름으로 볼 때 이제는 중소기업 종사자도 창업관련 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회제공은 향후 창업 전반에 선순환적인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첫째,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의 한정성은 연구 결과의 일반성을 제한할 수 있다. 다양한 지역, 산업 및 문화적 맥락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결과를 더 일반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연구에서 창업멘토링을 매개변수로 사용하였지만 창업멘토링 활용에 대한 세부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하였다. 셋째, 본 연구는 창업준비자의 개인창업역량과 창업 의도 간의 관계에서 동일방법편의가 발생될 수 있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 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차후에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각각 다른 소스로부터 측정하는 방안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넷째, 내생성이라는 것은 독립변수간의 인과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실증분석에서 요인분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독립-매개-종속변수간 내생성 문제는 AMOS 검정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창업효능감과 창업멘토링을 병렬이중매개모형으로 구성하여 검정하였기에 내생성 문제를 통제했다고 할 수 없어 후속 연구에서는 병렬이중매개 방식보다는 분위수회귀 모형 방식으로 검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향후 연구 과제로는 첫째, 본 연구에서는 각 창업역량의 하위변수를 개별적으로 고려하였지만, 이러한 창업역량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다변량 모형을 개발하여 창업 의도 및 성과에 대한 더 정확한 예측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창업자의 역량은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므로,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하여 창업역량의 동적인 변화를 모델링하고 창업 의도와 성과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창업자의 역량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환경, 시장 동향, 정책 변화 등의 외부 환경 요인을 고려한 모형을 개발하여 외부 요인과 내부 역량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넷째, 창업자의 성별, 연령, 문화적 다양성 등 다양한 인구 특성에 따른 창업역량과 성과의 차이를 연구하고, 이를 고려한 모형을 개발하는 연구도 필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연구의 탐구 방향을 확장 시키면 창업 관련 변수 간의 관계와 영향력을 더 잘 이해하고 창업

준비자들과 창업을 지원하는 여러 기관에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

- 강병승(2020). *시니어의 창업역량과 창업지원이 창업 효능감, 기회 인식 그리고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 강재학·양동우(2016). 대학생의 기업가정신이 창업효능감 및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기회인식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7(1), 493-507.
- 김미숙·김영국(2012). 관광관련 대학생들의 개인적 요인, 교육과 조직적 요인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창업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외식경영학회*, 15(4), 61-84.
- 김민성·이미숙(2019).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개방형 혁신 활동이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부산지역 창업 초기기업을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32(6), 2417-2439.
- 김영태(2020). 창업교육과 멘토링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자기 효능감과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벤처혁신연구*, 3(1), 1-26.
- 김영태·허철무(2021). 시니어 창업자 역량과 창업지원정책이 창업 의지에 미치는 영향: 멘토링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6(2), 109-121.
- 김완재(2007). *창업 특성과 소기업 사업성과 간 관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밭대학교
- 김재현(2023). *불확실한 창업환경과 창업자 특성이 아이템선정과 창업 의도 및 창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광운대학교.
- 김재형·곽원준(2018). 창업실패관련 지각된 혜택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창업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및 창업경험유무의 조절효과. *인적자원관리연구*, 25(4), 1-17.
- 김춘호(2022). 대학생의 창업멘토링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중심으로. *한국창업학회지*, 17(6), 1-22.
- 신교수·한태영(2015). 직무의의와 생생감이 중장년 근로자 노후준비에 미치는 영향: 멘토링의 매개효과 및 성차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28(4), 609-634.
- 신향숙(2021). *액티브 시니어의 창업역량이창업효능감, 기업가정신 그리고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 안태욱·이인아(2017). 멘토링 교육이 자기효능감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대학 창업동아리 활동을 조절효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장학보*, 31(3), 141-161.
- 안은주(2020). 직장인의 고용환경 요인과 기업가정신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지각된 소망성 및 실현가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 안태욱·이인아(2017). 멘토링 교육이 자기효능감과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대학 창업동아리 활동을 조절효과 중심으로. *한국자치행정학보*, 31(3), 141-161.
- 양경애·하규수(2020). 중장년층의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연구. *벤처창업연구*, 15(4), 45-55.
- 유영철·이원일(2023). 대학생의 창업교육 만족도와 창업지원제도인식, 창업멘토링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창업효능감을 조절효과. *벤처창업연구*, 18(2), 187-200.
- 윤인철(2017). 대학생의 개인적 특성이 창업멘토링과 교육만족,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융합학회*, 8(6), 265-273.
- 오현주(2023). *창업가 역량이 지속가능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창업멘토링 활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이윤석(2021). *대학생의 기업가적 역량과 기업가적 태도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이재열·하태관(2022). 시니어의 성장·고정 마인드셋과 창업역량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창업효능감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벤처창업연구*, 17(6), 89-104.
- 이정관·서영옥(2019). 청년창업자 개인특성과 환경요인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흡수역량과 조직네트워크 중심으로. *한국융합학회*, 10(10), 185-195.
- 이혜영(2018). *기술창업기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성장단계별 창업역량 모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임형식·노영재(2016). 외식산업의 창업기업 지원서비스가 창업역량과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관광연구*, 41(4), 273-293.
- 장영미·하규수(2018). 시니어의 창업역량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에관한 실증연구. *벤처창업연구*, 13(3), 13-36.
- 정행로·양동우(2021). 직장인의 창업생태계 인식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창업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대한경영학회지*, 34(7), 1149-1181.
- 조한준·최대수·성창수(2020). 창업멘토링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사회적지지, 창업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벤처창업연구*, 15(2), 81-96.
- 천위페이·황균정(2022). 멘토 역량이 창업의지에 미치는 영향: 멘토링기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3(5), 2591-2606.
- 한미경(2022). *잠재적 창업가의 창업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창업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 한미경·하규수(2021). 기업가정신, 사회적 지지 및 창업 멘토링이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10), 444-456.
- Ahn(2015). The employment dynamics of less-educated men in the United States: Therole of self-employment.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Revue canadienne d'e'conomique*, 481, 110-133.
- Ahn, E. J.(2020). *Employment Environment Factors and Entrepreneurship of Employees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ed on the mediated effects of perceived desirability and feasibility*. Doctoral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 Ahn, T. U., & Lee, I. A.(2017). The Effects of Mentoring Education on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on College start-up clubs activity moderating effects.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 Administraion Studies*, 31(3), 141-161.
- Bandura, A.(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
- Boyd, N. G., & Vozikis, G. S,(1994).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on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and ac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8(4),63-77.
- Chen, Y., & Hwang G. J.(2022). Effect of Moentor's Competency on Entrepreneurship Inten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Memtoring Function. *Humanities and Society* 21, 13(5), 2591-2606.
- Cho, H. J., Choi, D. S., & Sung, C. S.(2020). A Study on the Effect of Entrepreneurial Mentoring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Medi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sia-Pacific Journal of*

-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5(2), 81-96.
- Engle, R. L., Schlaegel, C., & Dimitriadi, N.(2011). Institutions and entrepreneurial intent: *A cross-country study. Journal of Developmental Entrepreneurship*, 16(02), 227-250.
- Hahn, M. K.(2022).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potential entrepreneur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efficacy*. Doctoral dissertation, Hoseo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Venture.
- Hahn, M. K., & Ha, K. S.(2021). Effects of Entrepreneurship, Social Support and Entrepreneurial Mentoring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Journal of the Korean Content Society*, 21(10), 444-456.
- Hayes, A. F.(2018).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Second Edition), Guilford.
- Jang, Y. M., & Ha, K. S.(2018).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 of senior's entrepreneurial competency on entrepreneurial will.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3(3), 13-36.
- Jung, H. R., & Yang, D. W.(2021).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Office Workers' Perception of Entrepreneurial Ecosystem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Korean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34(7), 1149-1181.
- Kang, Byeong Seung(2020). *Impacts of Seniors' Entrepreneur Competency and Startup Support on Entrepreneurship Efficacy, Opportunity Awareness, and Startup Intention*, Doctoral dissertation, Sejong University.
- Kang, J. H., & Yang, D. W.(2016). A study on the impact of college students' entrepreneurship on their entrepreneurial efficacy and entrepreneurial will: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recognition of entrepreneurial opportunit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dustrial-Academic Technology*, 17(1), 493-507.
- Kautonen, T., Down, S., & South, L.(2008). Enterprise support for older entrepreneurs: The case of PRIME in the UK,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 Research*, 14(2), 85-101.
- Kim, C. H.(2022). The impact of college students' entrepreneurial mentoring on their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Korean Entrepreneurship Society*, 17(6), 1-22.
- Kim, J. H., & Kwak, W. J.(2018). Effect of perceived benefits related to startup failure on startup intention: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self-efficacy and moderating effect of the presence or absence of entrepreneurship experience. *Human Resource Management Research*, 25(4), 1-17.
- Kim, M. S., & Kim, Y. G.(2012). The effect of individual factors, education, and organizational factors of university students related to tourism on entrepreneurship intention: The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self-efficacy. *Food Service Management Society*, 15 (4), 61-84.
- Kim, M. S., & Lee, M. S.(2019). Effect of open innovation activities of technology-based start-up companies on performance: Focusing on early start-up companies in Busan. *Industrial Economic Research*, 32(6), 2417-2439.
- Kim, Y. T.(2020).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and mentoring on entrepreneurial will: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fficacy and resilience. *Venture Innovation Research*, 3(1), 1-26.
- Kim, Y. T., & Heo, C. M.(2021). The Influence of Senior Entrepreneurship Competency and Start-up Support Policy on Entrepreneurship Intention: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Mentoring.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6(2), 109-121.
- Kim, W. J.(2007).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ship Characteristics and Small Business Performance*. Master's thesis, Hanbat University
- Krueger, N., Reilly, M., & Carsrud, A.(2000). Competing model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 411-432.
- Lee, H. Y.(2018). *A study on the start-up competency model for each stage of growth to enhance the success rate of technology start-up companies*. Doctoral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 Lee, J. Y., & Ha, T. K.(2022).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s of Seniors' Growth-Fixed Mindset and Entrepreneurial Ability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Entrepreneurship Efficacy.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7(6), 89-104.
- Lee, J. K., & Seo, Y. W.(2019). The Effect of Young Entrepreneurs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l Factors on Business Performance: Focusing on the Absorptive Capacity and Interorganizational Network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0(10), 185-195.
- Lee, Y. S.(2021). *Effect of entrepreneurial competence and entrepreneurial attitude of college student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Doctoral dissertation, Konkuk University.
- Lim, H. C., & Noh, Y. J. N.(2016). The effect of Supporting Service for start-up companies on Start-up Competency and Management Performance in Food Service Industry. *Tourism Research*, 41(4), 273-293.
- McGee, J. E., Peterson, M., Mueller, S. L., & Sequeira, J. M.(2009).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Refining the measur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3(4), 965-988.
- Mitchelmore, S., & Rowley, J.(2010). Entrepreneurial competencies: a literature review and development agenda. *International Journal of Entrepreneurial Behavior & Research*, 16(2), 92-111.
- Morris, M. H., Webb, J. W., Fu, J., & Singhal, S.(2013). A competency-based perspective 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Conceptual and empirical insight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51(3), 352-369.
- Oh, H. J.(2023). *A Study on the Effects of Entrepreneurial*

*Competence on Sustainable Management Performanc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Mentoring Utilization.*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 Shin, H. S.(2021). *The impact of active seniors' entrepreneurial capabilities on their entrepreneurial efficacy, entrepreneurship spirit, and will to start a business.* Doctoral thesis, Sejong University.
- Shin, K. S., & Han, T. Y.(2015). The impact of job enthusiasm and sense of creation on middle-aged workers' retirement preparation: the mediating effect of mentoring and the effect of gender differences.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8(4), 609-634.
- Tran, A. T., & Von Korflesch, H.(2016). A conceptual model of social entrepreneurial intention based on the 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 *Asia Pacific Journal of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10(1), 17-38.
- Vesper, K. H.(1983). *Entrepreneurship and national policy*, Chicago: Walter E. Heller International Corporation.
- Wanberg, C. R., Welsh, E. T., & Hezlett, S. A.(2003). Mentoring research: A review and dynamic process model. In *Research in personnel and human resources management*, Emerald Group Publishing Limited, 22, 39-124.
- Wilson, F., Kickul, J., & Marlino, D.(2007). Gender,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s: Implications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1(3), 387-406.
- Wu, S., & Wu, L.(2008). The impact of higher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of university students in China. *Journal of Small Business and Enterprise Development*, 15(4), 752-774.
- Yang, G. A., & Ha, G. S.(2020).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middle-aged people. *Venture Entrepreneurship Research*, 15(4), 45-55.
- Yoon, I. C.(2017). Effect on startup mentoring, education satisfaction, and startup intention according to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 of university student.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8(6), 265-273.
- Yu, Y. C., & Lee, W. I.(2023). The Effect of Satisfaction Level with the University Entrepreneurship Education, Recognition of Support System, and Mentoring on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 Moder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18(2), 187-200.
- Zhao, H., Hills, G. E. & Seibert, S. E.(2005). The mediating role of self-efficacy in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0 (6), 1265-1272.

# The Relationship Between Entrepreneurial Competen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SME Worker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 of Start-Up Efficacy and Start-Up Mentor

Oun Ju Lee\*

##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impact of individual entrepreneurial capabilities on entrepreneurial intention targeting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employees, and sought to confirm the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ial efficacy and entrepreneurial mentoring between entrepreneurial capabilitie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 sub-variables of entrepreneurship competency were analyzed separately into creativity, problem solving, communication, and marketing. 368 questionnaires collected from employees at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ing companies located across the country were used for empirical analysis. A parallel dual mediation model with no causal relationship between parameters was used for empirical analysis using SPSS v26.0 and PROCESS macro v4.2.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among the start-up competencies, creativity, communication, and marketing were confirme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start-up efficacy. Second, among the start-up competencies, creativity, communication, and marketing were teste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on start-up mentoring. Third, both startup efficacy and startup mentoring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influence on startup intention. Fourth, among start-up capabilities, creativity and marketing were confirme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start-up intention. Fifth, startup efficacy and startup mentoring were found to have a mediating effect on startup intention except for problem solving among startup competencie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in order to strengthen the intention to start a business among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 employees, start-up efficacy and start-up mentoring are important factors, and that marketing and creativity have an important influence among individual start-up capabilities, so education and prior preparation for these are necessary. As follow-up research, it will be necessary to apply multivariate models, analyze time series data, research considering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and test the difference between start-up capabilities and performance considering detailed population characteristics.

*Keywords: Small business worker characteristics, individual start-up capabilities, start-up efficacy, start-up mentor start-up intention*

---

\* First Author, Dept. of Management Information,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Ph.D, smartounju@naver.com